

예비 가정과 교사의 가족 개념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mily Concept and Values among
Pre-service Home Economics Teachers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이 정 수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천혜정*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Lee, Jung-Soo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eon, Hyejung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가정 교과와 가족 관련 단원
내용 및 교사의 가치관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mily concept and family-related values among pre-service home economics teachers. Questionnaires are completed by 242 pre-service home economics teach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defined the family as a blood ties, a resting place, affection, and warmth. They tend to regard divorced, remarried, and adopted members as families, while classifying homosexual couples, members living together in a communal fashion, and great-great grandparents into nonfamily groups. Majority of them agree that it had better to get married or it depends on personal circumstances. In terms of cohabitation, they think it can be an opportunity to check the compatibility before marriage. Also, they perceive parenthood as a personal lifestyles, statement of social maturation, sound mind, and realization of

* 주저자 : 천혜정 (hjcheon@ewha.ac.kr)

morality. They agreed to divorce relatively high in case of unfaithfulness and relative troubles, but agreement of divorce was relatively low because of instrumental reason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group majoring clothing and textile perceives the most negatively the influence of divorce to children. Further discussion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예비 가정과 교사 (pre-service home economics teacher), 가족 개념 (family concept), 가족 관련 가치관 (family-related values)

I.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 및 평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의 행동은 실제적인 교육활동 뿐 아니라 잠재적인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신동한, 1997), 이러한 교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교사가 지닌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가치관 하나의 특수한 행위의 양식이나 생활의 목적 상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지속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Rokeach, 1973). 즉, 각 개인이 무엇을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 아주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정범모, 1980). 따라서 동일한 교육과정이라도 교사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 및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5개 영역 중의 하나인 가족 관련 영역은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예를 들면, 성, 성역할,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 이혼, 재혼, 동거 등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은 첨예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사가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미래 가족생활을 영위할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혼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능력, 동료, 성인과의 관계, 학습에 대한 태도, 수업에 집중하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학업적 기능과 교사의 아동에 대한 태도간에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 되었으며(Wallerstein & Kelly, 1980),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기대와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학생의 자아개념과 행동양식이 변화될 수 있다(Jacoby, 2000). 즉, 학령기에 있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은 가족적, 부모의 요인 뿐 아니라 교사의 태도와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Ball, Newman, & Scheuren, 1984; 송다영·성정현·한정원, 2003).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부모가 이혼한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는 등 공개 상담을 하여 물의를 빚은 교사의 사건(한겨레신문, 2005. 5. 18)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불감증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학생들이다. 또한 교사들이 의식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므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업 장면을 관찰해보면 교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남학생 중심으로 지도하거나 격려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정혜윤·채정현, 2001).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성 차별적인 생각이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

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성 차별적인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교육의 주체로서 가정과 교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개인의 모든 행동과 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교사의 가치관은 개인의 행위 뿐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판단과 행위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 중등학교 가정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졸업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가정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식생활학과), 의류직물학과(의생활학과, 의류학과), 소비자아동학과(학부제 실시대학의 경우 생활과학이나 가정계열)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전공영역 분야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지만 교직과 관련한 타 영역에서는 단지 필수로 한 과목씩만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박명희, 2004). 즉,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을 기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교과내용은 기술을 가르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치지향적인 분야로서 교과내용뿐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이론을 학습하고 교육현장에 머지않아 배치될 다양한 학부 전공 배경을 가진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 정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정과 예비교사들이 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혼, 성 및 동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부모됨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를 예비교사들의 학부 전공--가정교육, 아동·가족·소비자, 식품영양, 의류직물--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가정과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나 교사의 선발과 임용, 더 나아가 현직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II. 가정 교과의 가족 관련 단원 내용 및 교사의 가치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교과 의 수를 10개로 제한한다는 총론의 원칙에 따라 기술·산업과 가정을 통합하여 기술·가정을 교과명으로 하여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산업 교과의 4개 영역과 가정 교과의 5개 영역을 ‘가정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의 3개의 대영역으로 통합하였다. 이 중 본 논문의 주제인 가족 개념 및 가치관과 관계가 깊은 ‘가정과 일의 이해’라는 대영역은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부각되어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생활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초등에서부터 중등에 까지 그 중요성을 연계시킨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전세경, 1998).

<표 1>에서 보듯이 ‘나와 가족의 이해’는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그리고 나와 가족관계라는 소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가정생활의 설계’ 영역에서는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그리고 결혼과

육아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특성’은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성과 이성교제’는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단원은 성교육 차원에서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성윤리, 임신과 피임, 성문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성교육에서는 교사의 태도나 사고방식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정금희·김신정·양순옥, 2003), 중등학교 여교사의 성편견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김영혜, 2003)에 따르면 남학생이 약하고 소극적이면 야단치고 여학생이 강하고 적극적이면 꾸짖으며 모든 남자는 늑대와 같다는 식으로 여학생을 훈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결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순결교육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대한 일방적 순결을 강조하는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매우 다른 교육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대용(2003)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의 문제점으로 우선 여성과 남성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에게는 순결교육을 남성에게는 성병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며 지극히 성차별적이고 원론적인 교육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성에 대한 지식 부족을 들고 있는데 특히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관을 갖지 못한 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할 때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바람직한 성의 정답을 가르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 해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함을 통해 모색되어지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 고정관념에 대한 교사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와 가족관계’는 청소년이 가족관계의 의미를 알고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법을 익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5학년 실과 교과에서 처음 다루어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내용은 7학년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일차적인 환경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7학년 교과서에서는 혼인관계와 혈연관계로 가족의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부모자녀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거나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가족을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0학년에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로 확장되고 가정의 기능 중 일부가 사회로 이전되면서 심신의 휴식처로서의 가정의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부모의 이혼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상당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표 1> '가족생활' 영역 내용 체계

대영역	가족과 일의 이해	
	7학년	10학년
중영역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교제 ◦ 나와 가족관계	가정생활의 설계 ◦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 ◦ 가족생활주기과 생활설계 ◦ 결혼과 육아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혹은 실패로 간주하게 되면 이것은 곧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Carlile, 1991). 그런데, 교사들은 한 부모가족 아동들을 소극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어 있으며 학업준비 및 수행에서 저조하다고 평가하였다. 사별가족 아동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우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이혼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며 공격성을 비롯한 문제행동의 우려를 높게 평가하여 사별가정 아동에 비해 이혼가정 아동을 상대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성정현·송다영·한정원, 2003). 또한 한 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험적 요인, 학생의 학교생활 수행정도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의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 가족주의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교사들의 의식이나 태도는 성장기 학생들의 자신감 및 자존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슷한 결과로, 최명구와 이인수(2004)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사일수록 한 부모가족 청소년을 부정적, 부적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 부모가족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거나 일반화된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때, 교사가 가족개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가족의 이상화를 지향하면서 핵가족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집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문화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의식주, 가족, 소비생활문화의 변화와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정생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며,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는 가족의 형성에서 쇠퇴까지의 가족생활주기와 그 특성을 이해하여 결혼과 육아, 의식주 생활, 진로 등 자신의 미래생활을 바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결혼과 육아’는 배우자 선택과 결혼, 그리고 부모됨의 의미를 이해하여 자신의 결혼관, 가족관, 자녀관 등을 정립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가족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중등학교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5-10년 후의 가족과 결혼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지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생물학적 유대를 강조하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 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동거가족, 재혼가족, 동성애 가족 등 비전통적인 가족형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양옥경, 2001). 또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62.8%의 여대생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포함한 응답자는 25.3%에 불과하고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도 2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김영옥, 1999) 결혼관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결혼과 가족생활 양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청년기 대학생들은 부모됨의 의미를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유계숙·정현숙, 2002), 부모됨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다영·성정현·한정원(2003)이 교사의 가족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부모됨이 필수라는 정형화된 인식이나 가치가 내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판단과 행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과 교육의 내용과 교사의 가치관과의 연관성을 종합해볼 때, 교사의 가치관은 개인적 행동 뿐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판단과 행위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비 초등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전세경과 양정혜(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생활과 관련된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정과 교사는 청소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뿐 아니라 교사 자신이 개방적이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여야 한다는 맥락에서 교사들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7학년과 10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 관련 교육내용을 근거로 가족개념, 결혼, 성, 부모됨, 이혼에 대한 예비 교사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정과 예비교사들의 가족개념 및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정과 예비교사들의 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혼 과정 및 혼전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지, 부모됨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이 예비교사들의 학부 전공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전공에 따른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교사의 가족개념은 어떠하며, 전공에 따라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예비교사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전공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예비교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전공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예비교사의 부모됨에 대한 의미는 어떠하며, 전공에 따라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예비교사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전공에 따라 이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12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지금 현재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혹은 비사대 교직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에 재학 중인 가정과 예비교사 27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 내용과 조사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한 270부 중 불성실한 기재를 하였거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242부가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3.7세로 20~23세가 122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24~27세가 78명

(32.2%), 28세 이상이 42명(17.4%)이었다. 전공은 가정교육전공이 142명으로 58.7%를 차지하였고, 아동·가족·소비자 관련 전공은 46명(19.0%)이었고, 식품영양학은 26명(10.7%), 의류직물학은 28명(11.6%)을 차지하였다. 학력으로는 대학교 재학이 114명(47.1)이고 대졸이상은 128명(52.9%)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79명(32.6%), 불교 28명(11.6%), 천주교 50명(20.7%). 종교가 없는 사람은 85명으로 가장 높은 35.1%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전업학생 151명(64.5%)으로 이루어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86명(35.5%)으로 이들은 가정과 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이수는 하고 있으나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였다.

3. 측정도구

1) 가족 개념

가족에 대한 정의는 ‘가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이 무엇인지 1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항목들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양옥경, 2001; 조은숙·옥선화, 1995)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혈연” “애정” “안식처” “피곤함” “따뜻함” “재정을 공유함” 등 10개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형태에 관한 질문지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유계숙·유영주, 2001; Klein & White, 1996) 다양한 성원 및 관계에 대하여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하여 그 빈도를 계산하였다.

2)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질문은 우선 결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으로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더 좋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할 필요가 없다’의 5가지 문항으로서 결혼의 필요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강은숙, 1981; 권오주, 1989; 송재희, 1988; Goode, 1982)를 기초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동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구성한 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성에 대한 태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 기준은 Reiss(1960)의 기준을 기초로 5가지 기준을 작성한 후, 응답자가 동의하는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김용미·서선희·옥경희·정혜정, 2002)를 기초로 혼전 동거를 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에 대한 동의정도를 질문하여 동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는 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0이다.

4)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척도는 Lupton과 Barclay(1997), Veevers(1973)의 연구에 기초한 유계숙·정현숙(2002)의 연구를 재인용하였다. 총 8개의 문항으로 “부모됨의 의미는 ...이다”의 형태로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6으로 나타났다.

5)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경혜·강유진·한민아(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10개의 문항은 심리정서적 요인(문항 1, 8, 9), 친족과의 불화(문항 2, 10), 배우자의 부정행위(문항 3, 7), 그리고 도구적 요인(문항 4, 5, 6)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동의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동의함(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심리정서적 요인 문항은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른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족과의 불화는 시택이나 처가와와의 불화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아내나 남편의 외도를, 그리고 도구적 요인은 불임, 경제적 무능력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이혼은 .67, 친족과의 불화로 인한 이혼은 .76,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80, 도구적 요인에 의한 이혼은 .64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와 함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쉽다’ ‘부모가 이혼을 한 사람은 자식들도

이혼하기 쉽다’ ‘내 자녀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5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전공별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예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교육 전공집단의 연령이 가장 낮았으며, 아동가족소비자 전공집단과 식품영양학 전공집단의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재학 중인 114명의 응답자 중 약 87%인 99명이 가정교육과에 재학 중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중

<표 2> 전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¹⁾

사회인구학적 변수		전공					F/χ ²
		전체 (n=242) ²⁾	가정교육 (n=142)	아동가족 소비자 (n=46)	식품영양학 (n=26)	의류직물학 (n=28)	
연령(M, SD)		23.71(3.28)	22.49(2.75) _{a3}	26.23(2.78) _b	25.84(3.78) _b	23.78(2.68) _c	25.104 ^{***}
학력(%)	대학 재학	114(47.1)	99(69.7)	2(4.3)	4(84.6)	9(32.1)	75.909 ^{***}
	대학원재학	128(52.9)	43(30.3)	44(95.7)	22(84.6)	19(67.9)	
종교(%)	기독교	79(32.6)	47(33.1)	16(34.8)	9(34.6)	7(25.6)	13.453 [*]
	불교	28(11.6)	23(16.2)	3(6.5)	-	2(7.1)	
	천주교	50(20.7)	32(22.5)	7(15.2)	5(19.2)	6(21.4)	
	없음	85(35.1)	40(28.2)	20(43.5)	12(46.2)	13(46.4)	
직업(%)	학생	156(64.5)	110(77.5)	20(43.5)	11(43.5)	15(53.6)	26.342 ^{***}
	그 외	86(35.5)	32(22.5)	26(56.5)	15(57.7)	13(46.4)	
결혼상태(%)	미혼	207(85.5)	133(93.7)	35(76.1)	17(65.4)	22(78.6)	20.532 ^{***}
	기혼	35(14.5)	9(6.3)	11(23.9)	9(34.6)	6(21.4)	

- 1) 각 수치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빈도(%)를 나타냄
- 2)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 3)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교는 없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학생이 64.5%로 많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을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과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로 표집하였기 때문이다. 결혼 상태는 85.5%가 미혼이었고 14.5%가 기혼이었다.

2. 가족개념

‘가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택하게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1명(33.5%)이 혈연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표 3>. 그 다음으로 안식처(71명, 29.3%), 애정(47명, 19.4%), 따뜻함(32명,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교육 전공 집단만 유일하게 안식처로서의 가족개념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예비 가정과 교사들은 혈연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안식처, 따뜻함, 애정)을 가지고 있어 혈연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의 이상화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이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인가라는 형태적 의미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15가지의 다양한 가족구성원 및 관계에 대하여 가족으로 규정한 빈도와 백분율을 크기 순으로 제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규정한 가족구성원 및 관계는 자녀(98.3%), 배우자(97.9%), 부모(96.3%), 형제자매(90.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가족으로 포함한 가족구성원 및 관계는 시부모(77.7%), 입양한 자녀(64.9%), 조부모(60.7%), 재혼으로 인한 새자녀(60.7%), 재혼으로 인한 새부모(58.7%), 재혼으로 인한 새형제자매(58.3%)로 나타났다. 반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가족이 아니다’로 규정한 관계는 혼인으로 인한 기타 친족(47.9%), 중조부모(33.1%), 고조부모(32.2%), 동거커플(8.3%), 동성애커플(7.0%)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가족으로 규정하여 핵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가족’ 구성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징적으로

<표 3>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n(%)

가족개념	전공	전체 (n=242) ¹⁾	가정교육 (n=142)	아동가족소비자 (n=46)	식품영양 (n=26)	의류직물 (n=28)
혈연		81(33.4)	42(29.5)	20(43.4)	10(38.4)	9(32.1)
애정		47(19.4)	28(19.7)	8(17.3)	4(15.3)	7(25.0)
안식처		71(29.3)	49(34.5)	10(21.7)	7(26.9)	5(17.8)
동거		3(1.2)	3(2.1)	-		
재정공유		-	-	-		
책임감		6(2.5)	2(1.4)	1(2.1)		3(10.7)
가장		-				
부담		-				
피곤		-				
따뜻함		32(13.2)	17(11.9)	6(13.0)	5(19.2)	4(14.2)
기타		2(0.8)	1(0.7)	1(2.1)		

1)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존재하는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규정하는 빈도가 낮아져 현재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양이나 재혼 등으로 형성된 관계는 가족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부모에 비해 시고모, 제부, 처형 등 혼인으로 인한 기타 친족은 가족으로 규정하는 빈도가 낮았다. 한편, 동거커플과 동성애 커플을 가족으로 규정한 비율은 극소수임을 볼 때, 동거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공별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식품영양학 전공집단은 부모를 제 1순위로, 의류직물 전공집단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모두 1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아동가족소비자 전공집단은 과반수 이상이 혼인으로 인한 기타 친족을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커플은 타집단의 절반 비율로 가족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부모 역시 타 집단보다 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비 가정과 교사들은 부부 또는 부모자녀관계를 가족구성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여전히 혈연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정과 교사의 직업의식 가운데 '가정이나 사회에 퍼져있는 고정관념을 비판한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한 김성교·채정현(2003)의 연구

<표 4>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 n(%)

전공 \ 가족의 범위	전체 (n=242)	순위	가정교육 (n=142)	순위	아동가족 소비자 (n=46)	순위	식품영양 (n=26)	순위	의류직물 (n=28)	순위
배우자	237(97.9)	2	139 ¹ (97.9)	2	45(97.8)	1	25(96.1)	2	28(100.0)	1
자녀	238(98.3)	1	140(98.6)	1	45(97.8)	1	25(96.1)	2	28(100.0)	1
시부모	188(77.7)	5	102(71.8)	5	42(91.3)	4	22(84.6)	5	22(78.5)	5
부모	233(96.3)	3	136(95.8)	3	43(93.4)	3	26(100.0)	1	28(100.0)	1
조부모	147(60.7)	7	89(62.7)	7	25(54.3)	11	16(61.5)	7	17(60.7)	7
혼인으로 인한 기타 친족	116(47.9)	11	64(43.5)	11	27(58.7)	7	11(42.3)	10	14(50.0)	11
고조부모	78(32.2)	13	44(31.0)	13	18(39.1)	13	9(34.6)	11	7(25.0)	12
중조부모	80(33.1)	12	45(31.7)	12	19(41.3)	12	9(34.6)	11	7(25.0)	12
재혼으로 인한 새자녀	147(60.7)	7	86(60.5)	8	27(58.7)	7	17(65.4)	6	17(60.7)	7
재혼으로 인한 새부모	142(58.7)	9	84(59.1)	9	26(56.5)	9	16(61.5)	7	16(57.1)	9
재혼으로 인한 새형제자매	141(58.3)	10	83(58.4)	10	26(56.5)	9	16(61.5)	7	16(57.1)	9
입양한 자녀	157(64.9)	6	93(65.5)	6	28(60.8)	6	17(65.4)	6	19(67.8)	6
형제자매	219(90.5)	4	127(89.4)	4	41(89.1)	5	23(88.5)	4	28(100.0)	1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커플	20(8.3)	14	12(8.4)	15	2(4.3)	14	2(7.7)	13	4(14.3)	14
동성애 커플	17(7.0)	15	15(10.5)	14	2(4.3)	13	-	-	-	-

1)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결과와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가정과 교사의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은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비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제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외시켜온 한 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교사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초혼의 핵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인식할 때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초혼의 핵가족이 아닌 비전통적인 가족의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Goldstein-Hendley, Green, & Evans, 1986).

3. 결혼

결혼은 성인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인간의 생활양식 중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써 결혼의 당위성 혹은 결혼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2). 특히 20-29세의 여성의 경우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42%)이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10.5%)보다 4배 이상 많아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경우에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필수로 생각하는 경우는 7.9%에 그쳤으며, 하는 것이 좋다가 49.6%, 그리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우가 41.3%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5>.

<표 5>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n(%)

전공 결혼의 당위성	전체 (n=242)	가정 교육 (n=142)	아동 가족 소비자 (n=46)	식품 영양 (n=26)	의류 직물 (n=28)
반드시 해야 한다.	19 ¹ (7.9)	8 (5.6)	5 (10.9)	2 (7.7)	4 (14.3)
하는 것이 더 좋다.	120 (49.6)	74 (52.1)	24 (52.2)	13 (50.0)	9 (32.1)
해도되고 하지않아도 된다.	100 (41.3)	58 (40.8)	17 (37.0)	11 (42.3)	14 (50.0)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1 (.4)	1 (.7)	-	-	-
할 필요가 없다.	2 (.8)	1 (.7)	-	-	1 (.7)

1)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한편, 예비 가정과 교사들이 보고한 결혼 동기를 살펴보면<표 6>, 애정충족의 동기가 가장 높은 비율(108명, 44.6%)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정서적 안정(67명, 27.7%), 경제적 안정(20명, 8.3%), 자녀출산(16명, 6.6%), 지위획득(10명, 4.1%), 사회적 규범에의 동조(8명, 3.3%) 등이 결혼을 하는 중요한 동기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예비 가정과 교사들은 애정 및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

오랫동안 혼전 성관계에 관한 기준은 단 하나로 결혼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심각한 성적 접촉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여성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1980년대 조사에서는 68.6~81.1%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1990년대 조사에

<표 6> 결혼 동기에 대한 인식 n(%)

결혼 동기	전공	전체 빈도(%)	가정교육 (n=142)	가족 아동 소비자 (n=46)	식품영양 (n=26)	의류직물 (n=28)
자녀출산	16 (6.6) ¹	8 (5.6)	2 (4.3)	2 (7.7)	4 (14.3)	
지위획득	10 (4.1)	2 (1.4)	1 (2.2)	2 (7.7)	5 (17.9)	
경제적 안정	20 (8.3)	7 (4.9)	5 (10.9)	6 (23.1)	2 (7.1)	
독립	4 (1.7)	3 (2.1)	-	-	1 (3.6)	
정서적 안정	67 (27.7)	45 (31.7)	14 (30.4)	7 (26.9)	1 (3.6)	
성적충족	2 (0.8)	2 (1.4)	-	-	-	
사회적 규범 동조	8 (3.3)	5 (3.5)	-	2 (7.7)	1 (3.6)	
애정충족	108 (44.6)	66 (46.5)	24 (52.2)	7 (26.9)	11 (39.3)	
인격성숙	4 (1.7)	2 (1.4)	-	-	2 (7.1)	
외로움 탈출	3 (1.2)	2 (1.4)	-	-	1 (3.6)	

1)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서는 그 비율이 47.5%~24.2%로 감소하고 있다(이동원 외, 2002). 그러나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14명(5.8%)만이 동의하고 있어 혼전 성관계를 둘러싼 태도

에 있어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이라면 괜찮다 혹은 사랑이나 결혼과 상관없이 서로 동의하면 괜찮다는 응답이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허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녀를 떠나 결혼 전까지 육체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55명, 22.7%) 혼전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다라는 응답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73명, 30.2%),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성과 결혼의 일치 경향이라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2002년 경찰청과 한국갤럽이 중고생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4%가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첫 경험 시기는 17살(39%), 16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태도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교사들은 대체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었다(석태중, 2003).

<표 7> 혼전성관계 허용정도에 대한 인식 n(%)

혼전성관계 허용정도	전공	빈도 (%)	가정교육 (n=142)	아동가족 소비자 (n=46)	식품영양 (n=26)	의류직물 (n=28)	χ^2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다	73 ¹	30.2	38(26.8)	18(39.1)	8(30.8)	9(32.1)	11.780
사랑하는 사이라면 괜찮다	69	28.5	38(26.8)	14(30.4)	9(34.6)	8(28.6)	
사랑이나 결혼과 상관없이 서로 동의하면 괜찮다	31	12.8	17(12.0)	5(10.9)	6(23.1)	3(10.7)	
여자는 결혼전까지 육체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14	5.8	10(7.0)	3(6.5)	-	1(3.6)	
남녀를 떠나 결혼전까지 육체적 순결을 지켜야한다	55	22.7	39(27.5)	6(13.0)	3(11.5)	7(25.0)	

1) 결측값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혼전동거를 하는 이유들에 대한 동의정도를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보인 이유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 서로 잘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결혼보다 각자의 독립된 생활이 보장됨'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음' '결혼보다 개인적인 책임감이나 헌신이 더 요구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으로 더 만족스럽다거나 성적인 충실성이 더 요구된다는 항목이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전이나 후보다 성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성적인 충실성이 더 요구된다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의류직물을 전공한 예비교사들은 가정교육이나 아동가족소비자 전공 집단보다 결혼전후보다 동거시 성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성적인 충실성이 더 요구된다는 항목에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식품영양 전공 집단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5. 부모됨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교사들

이 부모됨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도덕성의 실현'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정체성의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예비가정과 교사들의 전공에 따라 부모됨의 의미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수행'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능력 확인'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만족'이라는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개의 영역 모두에서 의류직물을 전공한 예비교사들의 문항별 동의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육과 아동가족소비자 전공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식품영양을 전공한 집단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류직물을 전공한 예비교사들은 가정교육이나 아동가족소비자 집단에 비해 부모됨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고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3개 항목의 동의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식품영양 전공 집단은 중간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모됨은 성

<표 8> 혼전동거에 대한 항목별 태도

전공	전체 M(SD)	가정교육 (n=142) M(SD)	아동가족소비자 (n=46) M(SD)	식품영양 (n=26) M(SD)	의류직물 (n=28) M(SD)	F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결혼보다 개인적인 책임감이나 헌신이 더 요구됨	2.74	2.76	2.61	2.88	2.75	.261
결혼전이나 후보다 성적으로 더 만족스러움	2.45	2.32a ¹	2.41a	2.69ab	2.96b	3.454**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음	2.79	2.70	2.76	3.00	3.07	1.110
성적인 충실성이 더 요구됨	2.69	2.54a	2.65a	3.00ab	3.25b	3.887**
결혼을 결정하기 전 서로 잘 맞는지 점검할 수 있음	3.40	3.33	3.41	3.54	3.61	.529
결혼보다 각자의 독립된 생활이 보장됨	2.93	2.96	2.96	3.19	2.50	1.626

1)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표 9>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인식

부모됨의 의미 \ 전공	전체 M(SD)	순위	가정교육 (n=142) M(SD)	아동가족소비자 (n=46) M(SD)	식품영양 (n=26) M(SD)	의류직물 (n=28) M(SD)	F
도덕성의 실현	3.80 (.76)	2	3.76 (.06)	3.76 (.73)	3.81 (.63)	4.04 (.83)	1.068
시민으로서의 책임수행	3.51 (.89)	6	3.42a ¹ (.90)	3.46a (.86)	3.65ab (.93)	3.93b (.81)	2.893 [*]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3.68 (.86)	4	3.56a (.87)	3.67a (.84)	3.88ab (.76)	4.11b (.83)	3.849 ^{**}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능력확인	3.31 (.85)	8	3.27a (.80)	3.13a (.88)	3.31a (.83)	3.75b (.96)	3.336 [*]
이타적 욕구의 충족	3.35 (.88)	7	3.37 (.86)	3.13 (.74)	3.38 (.98)	3.54 (1.036)	1.422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만족	3.61 (.92)	5	3.53a (.89)	3.50a (1.027)	3.81ab (.84)	4.00b (.86)	2.704 [*]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3.86 (.83)	1	3.84 (.83)	3.83 (.82)	3.85 (.78)	4.04 (.92)	.467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3.72 (1.02)	3	3.73 (.98)	3.63 (.87)	3.73 (1.116)	3.79 (1.315)	.163

1)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정체성을 수용하고 성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다라는 항목에서는 의류직물 전공과 나머지 전공이 유의하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역시 의류직물 전공 집단이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6. 이혼

응답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응답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사유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친족과의 불화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도구적인 요인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심리정서적 요인과 도구적 요인에 대한 태도는 전공별로도 유의미한 차

<표 10>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 전공	전체 M(SD)	가정교육 (n=142) M(SD)	아동가족소비자 (n=46) M(SD)	식품영양 (n=26) M(SD)	의류직물 (n=28) M(SD)	F
심리정서적 요인	3.84 (.73)	3.79a ¹ (.70)	3.71a (.75)	3.94ab (.73)	4.17b (.74)	2.865 [*]
친족과의 불화	4.07 (.73)	4.06 (.73)	3.97 (.82)	4.07 (.71)	4.28 (.59)	1.038
배우자의 부정행위	4.05 (.92)	4.07 (.91)	3.96 (.84)	3.81 (1.20)	4.32 (.81)	1.580
도구적 요인	2.99 (.78)	2.94a (.68)	2.85a (.66)	2.84a (.82)	3.63b (1.04)	7.807 ^{***}

1)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표 11>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전공	가정교육 (n=142)	아동가족소비자 (n=46)	식품영양 (n=26)	의류직물 (n=28)	F
	전체 M(SD)	M(SD)	M(SD)	M(SD)	M(SD)	
	15.17 (3.69)	15.20ab ¹ (3.43)	14.52a (3.38)	14.50a (4.45)	16.75b (4.36)	2.513*

1) duncan 사후검증

* p<.05 **p<.01 ***p<.001

이가 발견되었는데, 의류직물 전공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교육과 가족아동소비자 전공집단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그리고 식품영양 전공집단이 중간 정도의 동의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족과의 불화로 인한 이혼에 대해 참가자가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친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부부관계에서의 문제는 참고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혼이 가문간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남녀 개인 간의 결합이라는 최근의 가족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의식을 살펴본 결과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류직물 전공 집단이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였으며, 가족아동소비자 전공과 식품영양 전공 집단이 그 정도를 가장 약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정교육 전공집단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과 예비교사들의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예비교사들의 전공(가정교육, 아동가족소비자, 식품영양, 의류직물)에 따라 가족의 정의 및 범위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결혼, 성, 그리고 혼전동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부모됨의 의미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가족을 정의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목으로 혈연을 꼽았다. 이는 이영숙·박경란(200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을 정의하는데 혈연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혈연 다음으로 안식처, 애정, 따뜻함 등을 꼽고 있어 가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가족에 대해 낭만적 이상화를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친족과 중조부모, 고조부모, 동거커플, 동성애커플은 과반수 이상이 가족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핵가족화된 우리사회의 가족형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고 현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심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혈연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가족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교육할 때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입양가족이나 재혼가족 등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에 속해있는 아이들을 편견으로 바라볼 수 있고 편견을 가진 교사로 인해 아이들도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교사들의 정상가족에 대한 신념이나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한 부모 가족 아동을 만나게 될 때 주요한 인식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Goldstein-Hendley, Green, & Evans, 1986). 교실은 학생들이 단지 지식만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서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기르는 곳이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0학년의 '가정생활의 설계'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현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관하여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난 가족 개념의 방향도 함께 다루어지는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외시켜온 편부모가족이나 계부모가족, 미혼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교사 교육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고 교육의 내용도 개념적인 차원의 지식전달이 아닌, 보다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 차원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에 여성은 결혼을 지위부여와 지위상승의 주요 통로로 여겨 적령기에 달하면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겨왔던 결과(유영주, 1976; 정현아, 1984)와는 달리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혼전성관계에 대한 태도에서는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혼전동거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 서로 잘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로 나타나 예비교사들은 결혼을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혼전동거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로서 적합한지 점검하는 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넷째, 예비교사들은 '부모됨은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이다', '부모됨은 도덕성의 실현이며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유계숙·정현숙(200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제시되는 부모됨에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를 형성하게 하고 본인의 인생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은 미래 자신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바림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예비교사의 이혼에 관련한 가치관에 대한 태도를 요인별로 보면 친족과의 불화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도구적 요인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의류직물 전공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아동가족소비자 집단과 식품영양 집단이 가장 약한 경향을 보였으며 가정교육 집단이 중간 수준을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목에 따른 교사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에서 교사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전공에 따른 교사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교과목별 교사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중등학교 각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교육관에 적합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 자신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가정과 교육을 전공중인 학생들을 대상을 하여 예비 가정과 교사 전체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비율이 비교적 고르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전공에 따라 가족관련 개념 및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과연 각 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 등의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보다 엄격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과 예비교사들의 결혼과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미래에 교사가 되어 가정과 교과목의 가족생활 영역을 가르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전달하는 교과서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의 교사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부분에서 배우게 되고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본보기로써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과목 교사로서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인 자세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는 자신의 가치관이 교사로서 적합한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교직관을 확립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교수 방법 영역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권오주(1989).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김대용(2003).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의 문제. 교육철학 30, 27-45.
- 4) 김성교, 채정현(2003). 중학생의 가정과 교사 특성 지각과 가정과 수업을 통한 인성적 도덕성. 대한가정학회지 41, 57-74.
- 5) 김영옥(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8, 29-43.
- 6) 김영혜(2003). 청소년 어머니, 보건교사 및 일반 여교사들간의 성역할 차별 의식. 여성학연구 13, 19-37.
- 7) 김용미, 서선희, 옥경희, 정혜정(2002). 결혼과 가족의 의미. 서울 : 양서원.
- 8) 박명희(2004). 한국가정과 교사교육의 문제점과 전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 1-11.
- 9) 석태중(2003). 한국성교육의 한계와 향후과제. 교육학연구 41, 381-199.
- 10) 성정현, 송다영, 하정원(2003). 이혼가족 및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 11, 9-34.
- 11) 송다영, 성정현, 한정현(2003).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273-299.
- 12)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신동한(1997). 초등교사의 가치관과 교직관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 15) 유계숙,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 79-94.
- 16) 유계숙, 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 39-48.
- 17)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 18) 이동원 외(2002). 개인관계사회. 서울 : 양서원.
- 19) 이영숙, 박경란(2002).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 217-230.
- 20) 전세경(1998). 실과교과에서의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을 위한 토론: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1, 15-28.
- 21) 전세경, 양정혜(2003). 초등교육에서의 가족생활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 67-80.
- 22) 정금희, 김신정, 양순옥(2003). 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9, 420-431.
- 23) 정범모(1980). 가치관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24) 정현아(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정혜윤, 채정현(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천도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 47-57.
- 26) 조은숙, 옥선화(1995). 가족상 연구의 접근법 및 그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3, 111-123.
- 27) 최명구, 이인수(2004). 가족유형에 대한 교사의 가치관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인식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3, 5-18.
- 28) 통계청(1998, 2002). 한국의 사회지표
- 29) 한겨레 신문, 2005. 5. 18
- 30)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 15, 77-96.
- 31) Ball, D., Newman, J. M., & Scheuren, W. G. (1984). Teacher's generalized expectations of children of divorce, Psychological Reports 54, 347-353.
- 32) Carlile, C. (1991). Children of divorce: How teachers can help ease the pain. Children Education 67, 232-234.
- 33) Goldstein-Hendley, S., Green, V., & Evans, J. (1986). Effects of teacher's marital status on teacher's rating of a child. Psychological Report 59, 959-964.
- 34) Goode, W. J. (1982). The family. Englewood Clifffd: Prentice Hall.
- 35) Jacoby, R. S. (2000). Exploring school social worker's views of teacher's attitudes toward and interactions with children of divorce. University of New York, Ph. D dissertation.
- 36) Klein, D. M., & White, M.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Thousand O만, CA: Sage.
- 37) Reiss, I. L. (1960) Premarital sexual standards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Free Press.
- 38)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New York : The Free Press
- 39) Wallerstein, J. S. &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Inc.

(2005년 10월 13일 접수, 2005년 11월 21일 채택)